

노사상생형 일자리 새 모델...투자 유치·경영 안정 과제

광주형일자리 타겟 의미와 전망

30일 광주노사민정협의회에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의 안을 의결하면서 광주는 지금까지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함께 투자해 자동차 공장을 설립·운영하고, 임금을 낮춰 일자리를 더 창출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주거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현대차와 추가 협상이 남아있지만, 31일 투자협약 조인식은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제도 산적해 있다. 투자협약 조인식 이후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공장 건설 및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성이 낮은 SUV 경차를 생산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노사민정의 틀 안에서 단기간 내에 수익구조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점은 시와 현대차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광주시가 주도한 일자리 창출 대책, 세계 최초=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지 4년7개월, 현대차가 투자자의향을 제출한 지 7개월만에 이뤄진 투자자 간 합의는 여러 의미를 지닌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그동안의 투자 정

지역 청년고용·경제 도약 발판
연봉 3500만원·주44시간 합의
2021년 하반기 공장 가동 목표

책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주도한 첫 일자리 정책의 성공 사례라는 점이다. 지역 노동계의 대승적 양보와 협조가 견인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경직된 국내 노사 관계에도 훈풍이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속가능한 노사상생과 사회적 대통합의 모델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 무대에서도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리에 정착된다면 타 산업과 침체지역에서 제2, 제3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광주시는 미래형자동차 전진기지로 우뚝 서고 지역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광주 자동차 생산에 양적 팽창도 기대된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하면 리쇼어링(Reshoring) 즉,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산업구조가 척박한 광주가 새로운 경제·노동모델을 만들어내면서 지역 청년 고용, 경제 도약의 가능성도 열었다.

◇자기자본금 2800억원에서 21% 광주

시, 19% 현대차 부담=이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결된 협정서에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계획이 담겨 있다. 법인 자본금 7000억원 중 자기자본금(2800억원) 21%(590억원)은 광주시가, 19%(530억원)는 현대차가 각각 부담한다. 나머지 60%(1680억원)은 현대차 관련 기업, 지역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현대차는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 '신설법인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조항에 단서가 첨부된 것으로 알려져 신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자기자본금 이외의 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예정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자동차 공장은 광주 빛그린산단 내 62만 8000㎡ 부지에 들어서며, 연간 10만대 규모의 SUV경차를 생산하게 된다.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 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임금 협상 유예조항 어떻게 되나=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산은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이었다. 수많은 논



광주시가 30일 극적으로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노사민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 시청 관계자들이 31일로 예정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현대자동차 공장 투자협약식' 행사장을 준비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의과정을 거치면서 초임 연봉은 3500만원, 노동시간은 주 44시간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여기에 임대주택 등 각종 지원을 통해 1인당 700~80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는 점에서 연봉 수준은 현대자동차의 절반 수준에 가깝다.

문제는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과도한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노동계는 이에 반

해 동일업종에서의 동일 노동에 대해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가 이 간극을 어떻게 조율했는지 향후 사업 전망을 좌우할 핵심 포인트라는 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 시는 1월 초부터 현대차와 지역노동계를 오가며 의견을 좁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공장 건설 및 운영 계획 수립=31일 투자협약 조인식이 예정

대로 치러진 뒤 광주시, 현대차, 지역노동계 등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SPC가 2021년 하반기 공장 가동을 위한 준비 전반기에 맡게 된다.

현대·기아차 노조, 민주노총 등의 반발도 감안해야 한다. 이들 노조는 31일 투자협약조인식이 열리는 광주를 찾아 항의하고, 일부 파업에도 나서는 등 반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속된 그림? ...옹졸한 지배계층의 오만



김은영의 '그림 생각'

(255) 속화(俗畵)

인간의 생활상을 그림의 대상으로 삼은 풍속화가 조선 후기에는 '속화'라 불리우기도 했다. 당대 사대부들이 양반 지식층의 감성화에 대비하여 풍속화가 '저속한 계층의 삶을 담은 그림, 더 나아가 일상의 삶 자체가 속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경제력과 민중의식이 성장하면서 풍속화가 당당한 회화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자 문화적 우월성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지배 계층이 옹졸하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다.

서양 미술사에서도 당대 고전적 전통의 회화와 대비하여 멸시적인 의미를 담

은 '고딕' '매너리즘' '바로크' 등의 명칭이 만들어졌다가 미술사적 재평가로 바로 잡아졌듯이 풍속화도 더 이상 속된 그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최근 문화재청이 우리나라 여촌 지역에서 전승된 전통어로방식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는 뉴스를 아침신문에서 접하고 반가운 그림 한 점이 떠올랐다. 우리나라 전통 어로방식은 지난 시대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바닷가 해안의 생활을 모르는 사람에게 확실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김홍도의 '단원 풍속화첩'에 수록된 풍속화 중의 한 점인 '고기잡이'이다.

김홍도(1745-1806)의 '고기잡이'는 물고기 떼가 잘 드나드는 바다 한 가운데 대나무 발인 어살로 울타리를 만들어 그 안에 갇힌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그림에는 세 척의 배가 등장하는데 어살 안에서 잡은 고기를 맨 위쪽 배에서 건네 받아 항아리에 싣고 있고, 가운데 배에



김홍도 작 '고기잡이'

는 부두막에 얹혀있는 두 개의 술 으로 보아 식사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맨 아래쪽 거룻배 역시 고기를 싣기 위해 대기 중에 있다. 뱃머리에 어부가 잡은 물고기를 손에 들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풍성하고 왁자지껄한 어장의 분위기를 실감케 하는데, 어살의 대나무 위 고기떼를 따라 물새들이 왔다가 휘리릭 날아들고 있는 모습에서는 김홍도의 시정어린 감성도 살짝 엿보인다.

<미술사박사>

평화당·바른미래 호남 중진들 당 통합 추진

김동철·박주선·장병완 회동 당 지도부에 의견 전달키로 "3월중 통합 현실화 하겠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호남 중진들이 30일 회동을 갖고 통합 추진에 공감대를 이뤄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박주선 의원과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오만과 독선에 빠진 더불어민주당과 무능한 자유한국당을 뛰어넘는 수권 대안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 각 당 지도부와 만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오늘 지도부와의 회동이 있는데 자리에서 양당의 통합 문제를 공론화 하겠다"며 "2월 중에 당내 공감대를 이루고 평화당과의 협의를 진행, 3월에는 당 대 당 통합을 현실화 시킨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반발 문제와 관련, "이미 유승민 의원이 손학규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개혁 보수'를 고집했다는 점에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고 본다"며 "하지만 최대한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손 대표의 공방 여부에 대해 "손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야권의 정계개편을 얘기했다"며 "손 대표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호남 중진들의 생각처럼 순수히 민주평화당과 통합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당장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호남 중진들이 통합을 주장한다면, 당내에서 진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통합을 원한다면 탈당해서 하라"며 비례대표 등 당내 자산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내에서 제기되는 안철수 조기 등판론도 호남 중진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평화당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정동영 대표 측에서는 "함께 갈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며 "다만 당 대 당 통합에는 명분과 시기가 필요한 만큼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 측의 통합론과 관련, 명분이 부족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모두 현재로서는 차기 총선에서 생존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변수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결과가 꼽힌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통합보다는 분열에 방점이 찍힌다면 바른미래당 내부의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선거제도 개편도 변수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통합론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지만, 당내 안철수 계 인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래당과 평화당의 통합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론을 주장하기에 앞서 호남 중진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 선언에 나서서 것이 진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